제주사회복지신문

>2017년 10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20호

▲ '제 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 직능 단체장들이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가치 키우고, 나눔에 동행'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성료…생활 속 나눔 실천 함께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사회복지가 제주의 가치를 키웁니다'를 주제로 지난달 9일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 행사에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위성곤 국회의원, 이석문 도교육감, 윤춘광 제주도의회 부의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도의원 등과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자원봉사자,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은 장애·비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우누스 오케스트라, 크로스오버 그룹 라온의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도내 13개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인사, 유공자 시상, 기부금품 전달식, 기념사 및 축사, 윤리선언문 낭독, 백일홍 모종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유공자 시상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오운자 감수광 대표를 비롯해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등 총 36명이 각종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2017 제주 나눔대축제' 취지에 공감하며 나눔과 기부에 동참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형석), KT&G 제주본부(본부장 오영수), 아라온해수사우나(대표 장승남), 오제이㈜(대표 배성우) 기업체의 기부금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사회복지 윤리선언문 낭독에는 올해 취임한 석 건 복지관장(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박순옥 원장(그루터기), 권주경(서호요양원), 양재영(제주케어하우스) 신임 사회복지사가 대표로 낭독했다.

기념식 끝에는 싹이 튼 백일홍 모종을 들고 "사회복지로 제주의 가치를 키우겠습니다"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2017 제주 나눔대축제'가 체육관 일원에서 펼쳐져 성황을 이뤘다.

렛츠런파크와 함께하는 365일 36.5℃ 나눔상자 만들기, 삼촌 밥 먹엉 갑써 500인분 비빔밥 나눔, 1004인분 사랑의 짜장 나눔, '깡통열차 타고 떠나는 나눔여행'과 더불어 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마련됐다.

한편, 나눔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500여 명이 참가해 그림 실력을 뽐냈다.

☞ 관련기사 4~5면

제주 역대 최다 메달 110개 획득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제주도선수단이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인 110개의 메달(금36·은31·동43)을 획득하고 지난달 20일 '금의환향'했다.

제주도선수단의 종목별 메달집계는 수영 42개(금11·은16·동15), 육상 22개(금9·은4·동9), 역도 17개(금5·은2·동10), 사이클 7개(금4·은1·동2), 배드민턴 7개(금3·은3·동1), 게이트볼 금 2개, 태권도 3개(금1·은2), 댄스스포츠 2개(금1·동1), 론볼 2개(은1·동1), 파크골프 2개(은1·동1), 당구 은1개, 농구·볼링·요트 각각 동 1개씩이다.

이는 지난해 충청남도에서 개최됐던 지난번 대회에서 거둔 102개 메달을 뛰어 넘는 수치다.

육상 강 별(제주중앙여고)은 전국장애인체전에 첫 출전해 대회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하며 신인선수상을 수상했다.

박종성(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제주도선수단 총감독은 "많은 도민들이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 했으면 한다"며 "대회 기간뿐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선수들이 소외되지 않고 스포츠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체육이 보다 활성화 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사상 110개의 최다 메달을 획득한 제주도 선수단이 지난달 2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해단식을 갖고 있다.

지면소개

종합 ····· 2~3면 "자활은 사랑과 애정 쏟는 숭고한 활동"
기획 ····· 7면 시설탐방(90) - 참좋은지역아동센터
특집 ····· 4~5면 사진으로 보는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소식 ····· 8면 희망나래활동센터 등 시설소식

☞ 5면에 실리는 사회복지소식은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7 제주 나눔대축제' 관련 특집 지면 구성으로 8면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아라홀딩스
포레스트 판타지아
FOREST FANTASIA

'10월의 문화복지서비스' 안내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도내 전시회 및 공연 등의 관람지원을 통해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달의 문화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혜 택** : 포레스트 판타지아 관람료 할인 (제주조각공원 위치)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근무자 또는 근무자와 동행하는 시설 이용(생활)인, 일반 동행인
- **할인가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근무자 1인의 재직증명서를 매표소에 제시
- **할인가 및 적용기간** : 도민할인 + 추가할인 (2017. 10. 31(화)까지)

문의 : T.070-4726-8823, 홍나나 팀장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제주의료원, 원칙 없는 인사 행정 안돼”

제354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 3차 회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달 18일, 제354회 폐회중 회의를 열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보고 받았다<사진>.

이날 업무보고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의료원 노사문제와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 등에 대한 현안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용범 위원장은 “대다수 기관에서는 직무대리를 맡은 직원에 대해서는 통상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승진시킨다”며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직무대리로 직위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를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다. 마음에 들면 승진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리는 원칙 없는 인사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천문 의원은 “서귀포의료원 정원(306명)의 25%가 비정규직”이라며 “조직 진단을 벌인 뒤 정관 개정을 통한 정원 규모를 조정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서귀포의료원 전문의 사퇴로 빚어진 의료공백과 제주의료원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 건강버스의 낮은 가동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제주,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축구 ‘우승’

양창오 최우수 감독상, 김대오 최우수 선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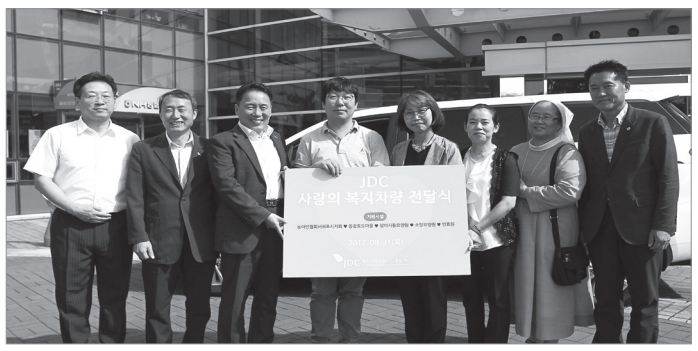
▲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협회 및 보건복지부장관기 축구대회에 우승한 제주사회복지사협회 대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및 보건복지부장관기 축구대회’가 지난달 8일과 9일 양일간 안양종합운동장을 비롯한 5개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는 ‘당신은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사 1천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 계주, 단체줄넘기 등 체육활동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제주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기 축구대회 우승과 함께 최우수 감독에 양창오 제주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최우수 선수에 김대우 사회복지사가 뽑히는 영광을 차지했다.

JDC, ‘사랑의 복지차량’ 5대 전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는 지난 8월 31일 JDC 본사에서 ‘사랑의 복지차량’ 전달식을 열고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5개소에 복지차량 5대를 전달했다<사진>.

‘사랑의 복지차량’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수 제작된 복지 차량이다.

JDC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도내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접수, 심의를 통해 동광효도마을, 성이시돌요양원, 소망요양원, 인효원 보은의 집, 제주도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회 등 5개소를 선정해 복지차량을 전달했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사랑의 복지차량 지원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의 불편을 겪는 이웃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도청어린이집,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 콘테스트’ 대상

제주도청어린이집(원장 이영란)이 출품한 사진이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 콘테스트’에서 어린이집 부문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사진>.

전국 육아지원종합센터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9회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 콘테스트”는 영유아부문(개인), 가족부문(개인), 어린이집 부문(어린이집)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어린이집 부문은 보육교직원의 행복한 모습, 행복한 보육활동 등을 주제로 했다.

제주도청어린이집이 제출한 작품 ‘바다를 보며 꿈꾸는 아이들’은 푸른 바다와 이를 바라보며 꿈을 꾸는 밝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창의성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9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140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2,981개 ▲금강수산유통=수산물89kg ▲김치원=김치20kg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423모 ▲대왕상사=천마차552개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41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2,590개 ▲모앙=제과류84봉 ▲미인빵=빵36봉 ▲신송식품=장류158kg ▲신화유통=장류26kg ▲아라파파=떡176개 ▲영화식품=장류30kg ▲이든이네=건어물15kg ▲자연드림 이도점=빵304봉 ▲제주보리촌=보리빵788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8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270,000	1,230,00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35,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390,000	390,000
복 지 사 업 후 원	975,000	463,000
푸 드 마 켓 후 원	3,215,000	105,24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안내 www.jejubokji.net

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예전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1동 1112-1)

발행인 : 고치환 **편집인** : 고봉식 **편집위원** : 김길웅·김범훈·한영조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자활은 사랑과 애정 쏟는 숭고한 활동”

원 지사, 지난달 15일 자활기능경연대회 참가 격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사)제주도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김효철)**가 주관한 제8회 제주도 자활기능경연대회가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자활기능경연대회는 자활사업 관계 기관과 참여자들의 교류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자활 관련 상품도 함께 홍보해 사업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도내 저소득층 자활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도의회 의장, 제주자활협회장 등의 표창이 수여됐다.

원희룡 지사는 “간병, 집수리, 자원 재활용 등은 단순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일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사랑과 애정을 쏟는 숭고한 활동”이라며 자활 사업 관계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 원희룡 지사가 ‘제8회 제주도 자활기능경연대회’에서 축사를 말하고 있다.

다음은 유공자 표창 명단.

▲도지사상=자활기업㈜살림과드림 조순실,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강명희,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변은경,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최미혜

▲도의회 의장상=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문정순, (사)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윤상신,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김미선,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강봉수

▲제주지역자활협회장상=영농조합법인 제주한라참쑥 대표 조남경, 모슬포 행운주유소 송대영, 제주희망협동조합,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자”

제주 사회적경제 한마당 ‘잇-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2017 제주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지난달 9일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서 마련됐다<사진>.

제주도와 **제주사회적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제주와 같이 잇–수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해피맘하우스 김미경 대표 등 4명과 제주청년협동조합(이사장 박경호) 등 2개 단체에 제주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산지천 탐라문화광장 일대 축제장에서는 이을락(樂) 사회적 경제 홍보 캠페인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만든 생산품과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활동이 진행됐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 공동 크라우드 펀딩 사업인 ‘뿔난 말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시민 체험 부스와 장기자랑·문화공연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기부데이, 나눔으로 희망을 선물해요”

제주중, 350만 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 기부

제주중학교(교장 김영민) 학생들이 지난달 6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생활용품 등 350만원 상당의 이웃사랑 물품을 기부했다<사진>.

제주중학교는 지난 2015년도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기부데이’ 주간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중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십시일반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물품을 모았다”라며 “작은 손길이지만, 지치고 힘든 이웃에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어필, 이웃돕기 생필품 전달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미어필(대표 강충희)**은 지난달 14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 핸드크림 500세트(2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미어필은 화장품에 제주청정 재료를 10%이상 함유해 생산하며, 이날 전달된 핸드크림은 제주조리대 성분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이다.

전달식에서 강충희 대표는 “앞으로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추석 명절 맞아 푸드뱅크에 따뜻한 손길 이어져

추석연휴를 앞두고 훈훈한 기부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 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와 **제주농협행복나눔운동본부(공동본부장 고병기, 양용창)**는 지난달 25일, 제주광역푸드뱅크에 라면 104박스(180만원 상당)와 사랑의 쌀 1000kg(300만원 상당)를 각각 기탁했다<사진>.

이 날 전달된 라면과 쌀은 해양경찰 직원과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기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부된 식품은 기초푸드뱅크·마켓 5개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광역푸드뱅크는 세계 빈곤 퇴치의 날(10.17)을 기념하여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Jeju 식품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는 중이다.

봉사하늬, 해안 환경정화 활동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1004봉사단 소속 **봉사하늬(단장 김하늬)**는 지난달 24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 날 환경정화 활동에는 20여 명의 봉사단원들이 참가해 60포대 자루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하늬 단장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지역이 깨끗해져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제주가 되길 바란다”고 봉사활동 소감을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사회복지가 제주의 가치를 키웁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난달 1일 '2017제주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한라체육관에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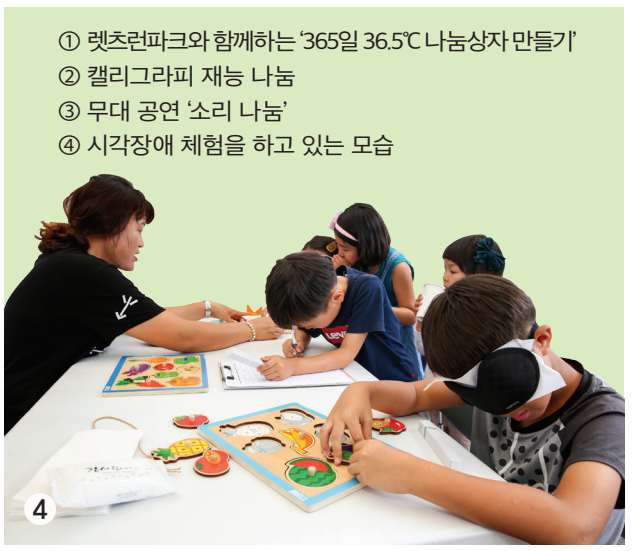
▲ ①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꽃이 피지 않은 백일홍 모종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② '2017 제주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단체 줄다리기, ③ 닭싸움, ④ 계주 경기

2017 제주 나눔대축제

'나눔'은 '동행'의 씨앗입니다!

'2017 제주 나눔대축제'가 지난달 9일 제주대학교 체육관 일원에서 펼쳐졌다. 4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와 다채로운 무대공연이 계속돼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일상 생활 속 나눔'에 대해 즐겁게 체험하며 '동행'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했다. **<편집자 주>**

① 렛츠런파크와 함께하는 '365일 36.5℃ 나눔상자 만들기'
② 캘리그라피 재능 나눔
③ 무대 공연 '소리 나눔'
④ 시각장애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지 우(아라초등학교 4학년)

김 태 성(이도초등학교 1학년)

제주도지사상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주요 수상작 소개

'2017 제주 나눔대축제'가 열리는 제주대학교 체육관 일원 잔디광장에서는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그림 그리기 대회가 개최됐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나눔'이 하얀 도화지에 색색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는 총 448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도지사상 등 36점 작품이 선정됐다. **<편집자 주>**

제주도의회 의장상

김 채 은(남광초등학교 4학년)

손 민 오(한라초등학교 2학년)

제주도 교육감상

강 하 늘(한천초등학교 5학년)

강 승 수(삼성초등학교 3학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 장려 부문
김희진(오라초등학교)
이근영(북촌초등학교)
강승연(월랑초등학교)
인지아(삼화초등학교)
오준서(삼양초등학교)
이수우(제주서초등학교)
김민주(제주관광대 부속 어린이집)
김민후(나라어린이집)
장다인(영락유치원)
김하은(요요어린이집)
이하림(영평초 병설유치원)
문서희(아라초 병설유치원)
조혜린(용담어린이집)
정하윤(참어린이집)
이예준(제주엔젤유치원)
이상 15명.

▲ 입선 부문
문선정(한천초등학교)
김유빈(장전초등학교)
박수언(물메초등학교)
박규민(화북초등학교)
황지우(제주중앙초등학교)
김예은(화북초등학교)
김주은(율곡어린이집)
지예안(소속 없음)
김정후(중앙유치원)
양온우(까리따스유치원)
김하율(고슴도치어린이집)
김소은(요요어린이집)
강 민(아라어린이집)
오민선(애육어린이집)
고유랑(YWCA어린이집)
이상 15명.

시론

청소년의 그늘

이 시대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설익은 과일처럼 풋풋함이 묻어나는 생기어린 얼굴,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간직한 미완의 세대. 거침없이 끼를 발산하며 럭비공처럼 어디로 뛸지 모르는 신세대, 개성이 강한 미래의 주역이다.

하지만 우리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가 받쳐주지 못한다. 가정폭력, 가정해체, 부족한 인성교육, 1등만을 요구하는 교육현실, 유해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된 온라인 세계,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성세대범죄는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긴다.

위기의 청소년

가정해체, 반사회적성격장애 등 문제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위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과 방황으로 일탈과 비행을 합리화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위기청소년이 된다.

학교와 사회에는 청소년선도를 위한 여러 사회안전망이 운영되고 있다. 대안학교, 가출청소년 쉼터, 유해환경감시단,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해소사업 등 시책은 많다. 경찰에도 여성청소년 전담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열 포졸 도둑하나 못 잡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선도를 위해 행정기관, 경찰, 관련단체 등이 노력하고 있으나, 범죄연령이 낮아지고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보도되면서 촉발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크나큰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며 온 국민을 경악케 하였다. 미성년자 여중생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의 범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요즘 발생하는 청소년의 범죄는 너무 흉폭하고, 후회나 반성을 모른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소년법 개정의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흉폭해진 범죄

1958년 제정된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4세 이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은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의 조숙함과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볼 때 반사회적 잔혹범죄에 대한 형량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에 빠지기 전 가정과 학교, 사회가 탈선예방에 대한 관심과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 익 순
전 4·3사업소장

기고

'문화누리카드'로 문화혜택 누리세요

정 서 희
구좌읍행정복지센터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 힐링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여전히 문화생활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2014년부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발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 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된다. 지원액 또한 1인당 연 간 5만원 지원되던 작년에 비해 6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발급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발급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주민등록 상 같은 세대에 있는 구성원들은 최대 7매의 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지원금을 최대 43만원까지 합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로 도서구입, 국내여행 및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구좌읍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로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촌에 사는 노인이 영화보고 책사서 볼일이 뭐있겠느냐 발급받아도 쓸 일이 없겠다" 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실용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비 결재 등 사용의 폭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모든 발급대상자가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서 읽고 싶었던 책을 사서 읽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관람하며 그동안 못했던 문화생활을 하며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칼럼

전설이 된 두 분

'전설이 됐다'는 건 살신성인한 이타적 삶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인 1795년(정조 때) 제주도에 대기근이 닥치자 전 재산을 풀어 진휼미(賑恤米)를 내놓음으로써 굶주린 제주 백성들을 구제한 거상 김만덕이 그 예다.

김만덕은 이십여 세에 관기의 신분에서 벗어나 제주에서 장사를 하며 객주를 연다. 호황으로 거부가 됐지만 늘 검소한 생활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김만덕은 뛰어난 기업가이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자선 사업가였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여성 최고의 벼슬 의녀반수(義女班首)에 올라 마땅한 분이다.

엄격한 유교 규범이 여성을 옥죄던 시대에 그 사회와 불화하지 않고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용기에 감탄한다. 그리고 해상을 이용하는 유통업에 눈떠 여성기업인으로 새로운 영역을 연 창의적 개척자, 김만덕은 제주의 전설적 인물이다.

거상 김만덕·일붕 서경보

일붕(一鵬) 서경보(1914~1996) 대종사를 빼놓을 수 없다. 승려로 입적하는 순간까지 그의 생애는 포교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삶으로 시종했다. 평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불살생주의를 전 인류가 실천하면 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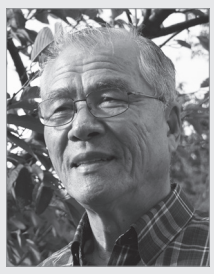
외국어에 능통해 인도에 가면 인도 말로, 중국에 가면 중국말로, 일본에 가면 일본말로, 미국에 가면 미국말로, 태국이나 스리랑카에 가면 역시 그 나라 말로 설법했다 한다. 어느 스님이 일붕 큰스님은 책상을 늘 갖고 다녔다고 회고한다. 가령 침소에 들 때도 책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다.

서예에도 일가를 이뤄 불교 포교를 위해 50만 장에 이르는 휘호를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통일전망대까지 800여 개의 '남북평화통일기원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평생을 학승으로 공부하는 자락을 한시도 놓지 않았던 분으로 철학·종교학·법학·언어학·인류학에 이르기까지 26개 분야에 126개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 저서 또한 무려 1042권, 범인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붕 대종사는 당신의 함자 앞에 '최다'가 여러 번 붙는다. 최다 박사학위, 최다 저서, 최다 통일기원비 건립. 종내는 일붕선교종 초대 종정이 됐고, 세계불교 법왕청을 열어 마침내 초대 법왕의 위에 올랐다.

우리는 두 분이 있어 제주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는다. 두 분 다 옛 제주인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다. 전설이 된 인물들이다.



김 길 웅
본지 편집위원·수필가

시설탐방 ····► (90)참좋은지역아동센터

엄마 품처럼 아이를 안아주는 곳

'세대통합' 위한 올바른 인격 형성 힘써

▲ 참좋은지역아동센터는 '참좋은 세상 만들기'를 미션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에 중점을 둔다.

참좋은지역아동센터(센터장 황의식, 이하 센터)는 월랑초등학교에서 노형오거리방향으로 300m정도 떨어진 지점 4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었다. 도심 속 상가 건물에 있어 입구로 들어가는 동안 차가운 느낌이 들었지만,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절친한 친구 집에 온 것처럼 포근한 기운이 맴돌았다.

도심 속 따뜻한 기운을 머금은 참좋은지역아동센터의 설립배경이 궁금했다. 황의식 센터장은 "맞벌이, 이혼 등의 문제로 방과 후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한 공간을 빌어 무료공부방을 운영한 것이 시초"라고 했다.

무료공부방이 소문이 나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자 장소가 협소해져 더 이상 공부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 노형동 현재의 자리로 이사를 했고, 지난 2008년 11월 지역아동센터로 인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참좋은 세상 만들기'를 미션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황 센터장은 '세대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변모하고 경제발전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올바른 인격 형성의 기회가 줄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 하고,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보며 '예의가 없다'고 한다.

센터는 '어린 시절부터 어르신과 소통하며 어르신을 존중하는 올바른 인격 형성 경험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2~3차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대접과 함께 공연을 실시한다. 참좋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어르신과 어울림에 어색해 하지 않고, 흥에 맞춰 신나게 놀 줄 아는 아동들이다.

아름다운재단 주최 콘서트서 '한국무용-검무' 공연 극찬

가장 큰 어려움은 임대료… 구성원 모두 일일찻집 동참 해결

센터를 자랑해 달라는 요청에 황 센터장은 "무료공부방 시절부터 함께해 온 선생님들이 자랑이다"며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해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센터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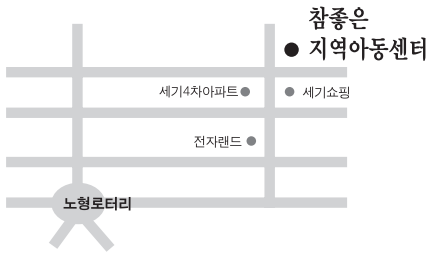
"센터 아동들의 주최하지 못할 '끼'도 자랑이다"고 했다.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이 전국 아동·청소년 특기적성 지원 대상으로 주최한 '아름다운 하모니 콘서트'에서 선보인 '한국무용-검무' 공연은 주최측과 관객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 공연을 본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올해 초 특별공연을 요청하기도 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 점에 대해서 황 센터장은 "추석이 지날 때쯤이면 건물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한 일일찻집을 계획해야 한다"라며 "운영지원금은 센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살림에도 항상 빠듯하기 때문에 내년 센터 임대료 해결을 위한 일일찻집을 연례행사처럼 열고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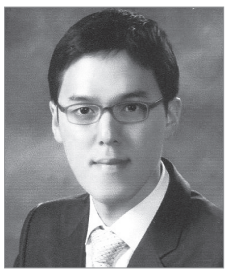
일일찻집이 열리면 센터 아동들과 학부모, 지역주민, 후원자 등이 총 동원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기에 매년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욕구 차이가 크다는 걸 느낀다"며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센터 운영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45

채무에서 벗어난 소송구조 사례



황 인 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지금까지 주제별로 칼럼을 써 오며 따로 떨어져 설명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결합하여 탄생한 사례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A 씨는 1990년대 말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남편이 마구 사용한 후 대금을 갚지 않아 고스란히 빚을 떠앉고 살게 되었다. 원금보다 몇 배로 커진 채무 때문에 잊을만 하면 날아오는 카드사의 빚 독촉은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처음에는 카드회사 이름으로, 나중에는 알만한 이름의 금융회사 이름으로 편지가 오더니 이제는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회사가 빚을 갚으라며 어려운 말로 겁을 주는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카드 회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느껴 싼 값에 다른 회사에 A 씨에 대한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를 넘기고 손실 처리를 한다.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빚 독촉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더 싼 값에 또 다른 회사에 채권을 넘긴다. 이를 채권 양도라고 하는데 처음에 채권이 1,000만원 짜리였다고 하면 몇 단계를 거치면 10만원에 이 권리를 산 새로운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1,000만원(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독촉에 견디다 못한 채무자는 힘겹게 전액을 다 갚기도 한다.

그런데 보통 이런 채권들은 몇 호 전에 설명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상태가 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

◆ '소송구조' 신청이란

채권자가 A 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 씨는 법정에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되지만 실제로 이를 수행할 만큼의 능력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소송구조'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부족하여 직접 소송에 임할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해진다. 간단한 양식인 소송구조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대상 증명서 등의 서류만 준비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구조 여부가 결정된다.

A 씨는 더 이상 독촉편지에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하여 무료로 선임된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였고 채권자는 재판에서 패소해 더 이상 A 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소/식/마/당

‘마음톡톡, 공감톡톡’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제주도인재개발원 ‘찾아가는 도민사회 교육’ 일환으로 ‘마음톡톡, 공감톡톡’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의 자아 인식과 사회적 인식 능력을 개발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해 독립심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이 프로그램은 10회기 과정으로 타인과 함께 풍부한 체험을 하도록 돕는다.

지역 어르신과 함께 ‘행복나눔’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9일 지역사회 연계사업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유수암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 어르신 약 40여 명을 송죽원으로 초대해 점심식사를 대접한 이번 행사는 거주장애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행복한 여름 이야기

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난 8월16일 금호리조트 제주의 초대로 거주인들과 함께 실내 아쿠아나 수영장을 이용했다.

이 날 리조트 측의 배려로 몸이 불편한 거주인들도 보조기구 등의 도움을 받아 수영을 즐겼다. 애덕의집 관계자는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커다란 행복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하루”라며 리조트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오감체험 여름방학 프로젝트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형자)는 지난 8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형석)**의 후원으로 ‘김녕 몽생이들의 오감체험 여름방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센터 아동들은 이번 프로젝트로 “물놀이, 요리활동, 도자기 만들기, 숲속 레포츠랜드 등 5가지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어느 때보다 기억에 남는 여름방학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통 염색 체험

신촌지역아동센터(센터장 윤화순)는 지난달 9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진행된 ‘감으로 물들인 스카프와 에코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풋감즙을 활용해 에코백과 스카프에 자신만의 그림을 담아내는 형태로 체험이 진행됐다. 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염색 체험과 함께 자신이 만든 작품을 가질수 있게 되어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멘도롱 똣똣 ‘가족여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일정의 ‘멘도롱 똣똣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위탁부모와 아동 45명이 참여해 서울, 예산, 담양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가족간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문위원 위촉식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강석봉)는 지난달 6일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및 권익옹호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학계, 법조계, 의학계, 경찰 등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향후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및 권익옹호 등 제주발달센터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수눌음육아나눔터 12호점 개소식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달 14일 제주도 지원 사업으로 수눌음육아나눔터 12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수눌음 육아나눔터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의 핵심과제로, 마을에서 이웃끼리 자녀들과 함께 돌봄을 할 수 있는 자발적 지역 돌봄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타일벽화 예술활동 프로그램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으로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타일벽화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업전 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타일벽화 미술활동을 통해 훈련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표현력 및 자존감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활동

삼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류일순, 김순덕)는 지난달 2일 관내 장애인 가정 2가구에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이 가정은 협의체 위원들이 차상위 등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과정에 발굴된 가구로 장애와 저소득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선정, 제주도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집안 청소와 도배를 제공했다.

초록우산 인성교육 진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은 올해 상반기에 신제주초 등 4개 초등학교 783명을 대상으로 ‘초록우산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인성교육은 참여형 활동교육으로 개개인의 어린이가 부모, 강사, 친구들로부터 공감 받고, 그런 경험이 쌓여 스스로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의 가능성과 만나는 여행

비전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명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방학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난 8월2일부터 3박4일 동안 서울여행을 다녀왔다.

센터 아동 29명이 참여한 이번 여행에서 아이들은 분당에 위치한 한국 잡월드에서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하고 경복궁,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등 유명 관광지를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